



# 교육연합신문



2026년 6월 17일 (수) 제446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5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6월 10일 고양시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통학, 학군, 학교 개방 등 생활 밀착형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학생 중심 경기교육으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고양 경청투어는 당선 이후 추진 중인...



## 기업탐방-김문찬 IHBA 대표 ▶7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서 시작된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과 올바른 식문화를 형성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특히,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 부산 최초 재개교 신연초 ▶11면

부산 남구 신연초등학교(교장 변정환)는 6월 10일 교내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재개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최초의 재개교를 기념하는 자리로, 단순히 학교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을...

## 전남교육청,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활동 시작

### 준비위원 12명·실무위원 94명 등 참여... 시민소통위원회도 별도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위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6월 10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김대중 교육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과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 12명, 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교육의 비전을 담은 현판식을 갖은 이후 준비위원 12명, 실무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김경범 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기획 ▲AI교육대전환 ▲자율분권교육 ▲메가시티교육 등 4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오는 7



월말까지 운영된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의 분야별 학부모, 대학생, 시민사회, 대학, 지자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며 현장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시민소통위원

회는 다음주 중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준비위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광주·전남 두 지역의 균형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이원화된 부분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 본부는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전

남 본부는 전남교육청체육교육센터(무안군 남악)에 각각 동지를 틀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에 대한 기대는 특별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시선으로 다가서고 있다"면서 "특별시 교육을 AI 시대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대체 불가 K-교육으로 완성해내자"고 당부했다.

김경범 위원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통합특별시 교육의 정책과 비전, 실행계획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 K-뷰티 문화예술 발전·글로벌 교류의 장 마련

### 세계문화예술페스티벌, '2026 제11회 국제뷰티마스터콘테스트' 성료

세계문화예술 국제뷰티마스터콘테스트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IHBA)가 주관하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한 '2026 제11회 국제뷰티마스터콘테스트'가 지난 6월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문화예술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종합 뷰티 경진대회로, 헤어, 이음,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아트, 퍼머넌트 메이크업(PMU), 두피SMP, 공모전, 뷰티아트작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선보였다.

대회는 분야별 기술 경연과 작품 심사를 통해 뷰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열정과 노력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행사장에는 헤어증모가발 명인·명장전, IBMC 멘토그랑프리 작품전, 뷰티아트 초대작가전(작가 하서진), TATTOO ART 작품전 등 다양한 특별전이 함께 개최돼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국 각 대학과 교육기관, 뷰티 전문교육기관에서 출품한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행사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성, 예술성을 보여주며 K-뷰티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뜻깊은 전시로 평가받았다. 특히 타투 작품들은 예술적 표현력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뷰티기술이 문화예술 콘텐츠



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시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부산광역시교육감,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최고 그랑프리 대상 수상자들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최고그랑프리 대상은 ▲헤어 부문 김예은 ▲피부미용 부문 윤순영 ▲메이크업 부문 임선영 ▲네일 부문 정태희 ▲반영구화장(PMU) 부문 박다인 ▲두피SMP 부문 최지현이 각각 수상하며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부산광역시시장상은 ▲헤어 부문 김예은 ▲이음 부문 정인성 ▲메이크업 부문 김수안 ▲피부미용 부문 정영란, 주경이 ▲네일 부문 ▲공모전 부문 권나영이 수상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우수 지도자상은 동명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송미경 교수, 신라대학교 뷰티케어학과 이재화 교수, SBS아카데미뷰티스쿨 당진캠퍼스 박지연 원장, 부산예원고등학교 박소영 교사, SBS아카데미뷰티스쿨 서면캠퍼스 오희정 원장, SBS아카데미뷰티스쿨 동래캠퍼

스 오미주 강사, KBS아트비전미용학원 부산명지캠퍼스 심가영 원장, SBS아카데미뷰티스쿨 창원캠퍼스 하수정 부원장, 창신대학교 우미옥 교수, 피시엘코리아 포함이주는 원장, 디에이(DA)스칼프정은기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6 IBMC최우수기관상은 동명대학교, 신라대학교 뷰티케어학과, SBS아카데미뷰티스쿨 서면캠퍼스, SBS아카데미뷰티스쿨 창원캠퍼스, 아플리에뷰티아카데미 부산캠퍼스, SBS아카데미뷰티스쿨 당진캠퍼스, KBS아트비전미용학원 부산명지캠퍼스, MBC뷰티아카데미 부산서면캠퍼스, 드라마틱평생교육원, 경남정보대학교, 김해대학교가 선정됐다.

특히 교육기관중 최고그랑프리상은 창신대학교와 모이든아카데미가 수상하며 우수한 교육역량과 학생들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의 기쁨을 안았으며, 대한민국 K-뷰티 산업과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현 기자 ijh@

##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고진 장관과 정석항공고 방문

### 협약형 특성화고 현장 간담회... 직업교육 성과·발전 방향 논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6월 8일 정석항공과학교등학교(교장 정신석)에서 최고진 교육부 장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가 지정한 협약형 특성화고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직업교육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최고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

해 항공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석항공과학교고는 지난 2024년 제1기 교육부 지정 항공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이후, 인천 국제공항과 지역 항공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점검), 항공 전기·전자 등 항공정비 분야의 현장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왔다.

이날 도성훈 교육감과 최고진

장관은 첨단 항공 정비 실습실을 둘러보며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설계, 산업체가 요구하는 항공 정비 기술 역량, 지역 항공산업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고진 장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이 학교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새로운 직업교육 모

델"이라며, "정석항공과학교가 인천의 항공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지역 정주형 직업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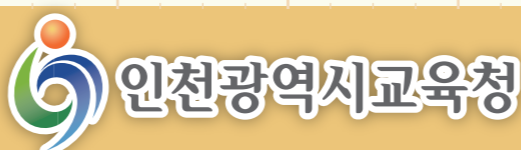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공학과 항공이 입지하고 20개 산업단지 및 첨단 신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돼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라며, "인천의 협약형 특성화고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취업 지원, 산학협력, 졸업 후 성장관리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함께 합니다

# 독서국가 독서인천

책 읽는 가정!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구성안 발표

##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민선 9기 시정 핵심 과제·실행 로드맵 집중 점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부산시정 출범을 준비할 부산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안을 6월 9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의 대외 명칭은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로 정했다.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다.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즉시 챙기고,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은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전재수 시장의 의지를 담았다.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10일 공식 출범해 20일간 활동하며,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인수위원장은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차 위원장은 부산 지역 정치와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수위원회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신영란 한국해양대 글로벌물류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신 부위원장은 40대 여성 해양·물류 전문가로, 부산의 핵심 비전인 해양수도 완성과 글로벌 물류도시 전략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갖췄다.

이번 인선은 젊은 세대와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산



미래전략의 실무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핵심은 실무형 구성이다.

특히, 젊은 실행력과 안정적인 전문성을 함께 갖춘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원 20명 가운데 20~40대 인사는 8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현장 감각과 실무 추진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고르게 배치해 시정 운영의 안정감과 정책 전문성도 함께 확보했다.

특히, 20대 부산대 학생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 준비의 주체로 세우고, 청년 유출과 지역대학 위기 등 부산의 미래 과제를 당사자의 시각에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수위원회에는 교수, 현장 전문가, 노동계, 행정 경험자, 청년 인사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부산의

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전재수 당선인은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한 실무형 준비위원회라며, "젊은 실행력과 분야별 전문성, 시정 운영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출발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민소통특위는 선거의 경계를 넘어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함께한 분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는 통합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전재수 시장은 지지 여부와 진영을 넘어 부산 시민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시정으로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은 지금 민생경제 위기,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복합 과제 앞에 서 있다"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시민 삶의 문제는 즉시 챙기고,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공약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 과제로 전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은 즉시 챙기고, 미래는 확실히 준비해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우규 기자 hog@

### 社說

## AI 시대의 교육감, '기계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미래'를 지휘하라

지방선거가 끝났다. 각 지역의 교육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공방만 가득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정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투표 후에도 답을 찾기 어렵다. 눈앞의 선거 공약만으로는 후보의 철학과 미래를 모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미 교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거대한 시대적 책무를 마주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미래 교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현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촉구한다.

첫째, 정답을 찾는 교육을 폐기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기존의 교육은 정답만 강요했다. 빠른 암기와 정확한 연산에만 몰두했다. 이런 지식 습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정보의 취합과 가공은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

교육감은 교실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대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AI에게 올바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교과서를 외우는 교실은 끝내야 한다. 사회적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교실을 당장 만들어라.

둘째, AI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라. AI 기술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강력한 도구다. 학생 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메꾸주는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라. 진도를 못 따라가는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너무 앞서가서 지루한 학생도 없어야 한다. 교실의 평등은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성이 숨 쉬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 지식 전달은 AI에게 맡기면 된다. 교사는 비로소 학생과 눈을 맞출 시간을 얻는다. 교사의 역할을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인생의 멘토'로 재정의하라. 협동심,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은 기계가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다.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기술 윤리와 주체성을 심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무화하라.

AI 기술의 어두운 단면은 이미 파괴적이다. 딥페이크 범죄와 정보 왜곡이 청소년의 삶을 위

협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윤리를 빼놓으면 교육이 아니다. 도덕성이 없는 인재는 도구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교육감은 인기 시작과 동시에 AI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 기술을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라. 이것이 미래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교육은 과거의 관행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준비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제 지휘봉을 잡았다. 당선된 기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10년 뒤, 20년 뒤의 별판을 바라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즉시 버려라. 시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 거친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서퍼로 키워내야 한다. 당선인들은 지금 당장 진정한 미래 교육의 뜻을 올리라. 본인의 임무에 모든 것을 걸라.

## 김대중 인수위 "대한민국 교육 표준 설계한다"

###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12명 인수위 구성 'K-교육특별시 준비위' 출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설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대중 당선인과 준비위는 6월 8일 첫 상견례를 갖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9일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참배하며 역사적 의미를 다진 뒤,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직접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준비위는 형식적인 자문기구를 탈피하고, 선거 공약을 신속하게 실무 과제로 재편하기 위해 12인의 현장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준비위의 지휘봉을 잡은 김경범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이 임명됐으며, 각계 현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대거 합류했다.

위원은 ▲김용태(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창욱(전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이환호(전 고려교 교장) ▲강영(광주송정초 교장) ▲김두석(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사무관) ▲안병모(전남교육청 정책연구소장) ▲한창수(영강초 교장) ▲김권오(순천

선해학교 사무관) ▲김인(목포여고 사무관) 등으로 구성됐다. 대변인은 김성수 전 전남일보 취재국장인 말했다.

준비위 10일 출범식을 갖고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양 지역의 균형과 화합을 위해 광주 본부와 전남 본부 2개소로 분할 운영된다.

김경범 위원장은 "전남·광주의 안정적인 통합을 이뤄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참상식 기자 2580news@daum.net

## 인천교육청, '잉키피플' 본격 활동

### 제4회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성공 개최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잉키피플'은 영화제의 기획·운영과 심사에 참여하는 어린이·청

소년 집행위원단으로 올리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동일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등 49명이 선발돼 활동에 나선다.

지난 6월 4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7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발대식을 마친 학생들은 11월까지 월 1~2회 정기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영화 비평 및 읽기, 심사 방법, 상영관 진행 방법 등 집행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11월 14일 개최되는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출품작 심사, 상영관 진행, 체험 공간 운영 지원,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영화제에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인용성 기자 ays@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인천TP·인천시, 24일 뿌리기업 채용박람회

### 지역 뿌리산업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불일치 해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인천 남동구 평생학습관 4층 채용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뿌리기업 채용박람회 '뿌리기업과 함께 하는 2026년 남동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불일치(미스매칭)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TP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협력해 숙련 인력이 필요한 뿌리기업과 구직자 간 실질적인 채용연계를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채용관'에서는 뿌리 및 일반기업 20개사가 1:1 면접을 진행하고, '취업지원관'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심층 상담과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력서 사진 촬영, 뿌리산업 VR 체험, AI 캐리커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해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행사장 내 운영사무국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상주해 참가자 안전관리와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뿌리기업 채용박람회' 운영을 맡은 (주)채움에이치알디(대표 이수연)는 채용박람회, 고용

노동부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위탁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행사장 내 운영사무국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상주해 참가자 안전관리와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뿌리기업 채용박람회' 운영을 맡은 (주)채움에이치알디(대표 이수연)는 채용박람회, 고용

## 김홍제의 목요일칼럼

### “그거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그거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분노가 일었다. 답답을 하면서 학생에게 가장 화가 나는 일은 괴롭힘이었다. 약한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학생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 지나가면서 머리를 톡톡 치면서 갑자기 목을 누르거나 연필로 등을 찌러거나 한다. 울면 더 놀리면서 '내가 뭐?'라는 표정을 짓는다. 답답이 발견해서 제지하면 "아니 그냥 친해서 장난한 거예요."하며 그냥 속 지나간다.

곤충의 다리를 자르고 날개를 자르고 하다가 결국은 목을 잘라내고 죽음의 고통에 꿈틀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장난의 강도는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초기에 작은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교육하고 훈화하는 것이 답임 교사인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벤트가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대표가 사과도 했다. '일베' 등장 이후 혐오 높이는 일상화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앞 '폭식 투쟁' 처럼 혐오가 유희의 형태로 오고 있다. 혐오 세력은 계산된 모호성으로 도발적 메시지를 던지고 비난에 처하면 의도성을 부인한다. 제재가 가해지면 '전체주의'로 비난하며 자신을 억압받는 피해자로 만든다. 쟁점을 '표현의 자유'로 바꾸어 비난을 무력화하고 결국 자신의 도발을 사회가 관용하게 만든다. 민주국가라면 극단주의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학생을 그냥 모른 척하고 두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은 교사에 대하여 더 많은 위해를 할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교실에서 교사 권위를 무시하는 학생을 어떻게 처벌을 피할 정도의 경계선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걸리면 장난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원해서라고 하기도 한다.

나는 그 학생에게 묻는다. 너 보다 힘이 센 친구에게 그렇게 장난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고. 당연히 그런 적은 없다. 장난이라는 말은 폭력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뿐이다. 친구를 곤충이나 작은 힘없는 동물처럼 학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거나 장난을 치거나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학생(그런 학생은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선을 넘나들면서 학교와 교사를 능멸하려 한다. 성취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작은 싹부터 반드시 끊어주어야 한다. 학생이 파괴와 능멸이라는 어긋난 성취 재미를 느끼고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끊어주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스타벅스 '5·18 탱크 데이' 이

학교 교육은 작은 틈을 막는 것에서 시작한다. 상대에 대한 폭력적인 장난을 그대로 두면 더 큰 분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작은 일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한 사람의 품격과 사회의 품격을 만든다. 교실에서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인간 존중과 교육은 시작한다.



김홍제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실 6국 체제' 출범

### 기획조정실 신설, 기존 6국 체계 유지로 통합 초기 안정성 확보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통합 교육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추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기존 6국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미래교육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등

6개 국 체제를 유지하는 '1실 6국 체제'로 출범한다.

특히,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되어 통합행정, 조직·재정 전략 수립,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전남과 광주의 상이한 교육환경과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통합교육청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존 6개 국은 현행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승계하도록 설계했다. 학교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지원, 교육행정 서비스 등 현장과 밀접한 업무는 연속성을 유지해 통합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의 우수 교육정책과 행정 역량을 결합해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교육과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재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출범과 조직 정착을 도모하는 1

단계 개편이다.

향후 조직 운영 성과와 교육환경 변화,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업무 재설계를 통해 본청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체계로 슬림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의 안정성과 교육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됐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통합교육청이 안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 책소개

### 지금, 깨달을 결심

경동대학교 권오만 교수



경동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권오만 교수가 신작 산문집 『지금, 깨달을 결심』(제이브리드북스)를 출간했다.

"비우려 갔다, 채워져 돌아온 스무살"

우리는 저마다의 소란을 듣고 살고 있다.

잠시 멈추고 싶을 때조차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에 익숙하다. 『지금, 깨달을 결심』은 작은 산사에서 보낸 스무살의 기록이다. 산사 지킴이 강아지 '맹구(분명 자비)'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저자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비움 속에서 오히려 채워지는 마음의 풍경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이 책은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건네는 치유와 성찰의 산문집이다.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쉽지 않았던 저자는 안식년이라는 뜻밖의 쉬는 마중하며,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질문을 안고 향한 곳은 경주 단석산의 작은 산사 '신선사'. 화려하고 편리한 도시의 삶을 잠시 내려놓은 채 머문 스무살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었다.

이번 산문집에서 저자는 산사에서 불을 지피고 스스로 밥을 해먹어야 하는 소박한 일상과 작은 노동, 계절의 변화, 그리고 산사 지킴이 강아지 '맹구'와의 교

감을 통해 삶의 본질을 들여다 본다. 채움보다 비움, 익숙함보다 낯설, 경쟁보다 멈춤이 건네는 의미를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특히, 말없이 곁을 지켜준 맹구와의 시간은 단순한 반려의 기억을 넘어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색의 계기가 된다. 순간의 욕심보다 만족을, 앞서가기보다 함께 걷는 시간을 통해 저자는 일상의 소중한 깨달음을 발견해간다.

환경계획과 조경학을 전공한 권 교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KBS 「북한산은 살아있다」, SBS 「월악산」 등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환경·생태 전문가이기도 하다.

책은 경쟁과 속도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멈춰도 괜찮다"는 조용한 메시지를 전한다. 반복되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 잊고 지내던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권오만 교수는 "이 책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묻는 시간의 기록"이라며 "익숙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호승 시인, 김우중 문학평론가, 김승진 선장, 서경덕 교수 등 각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이 전하는 힘과 성찰

의 의미에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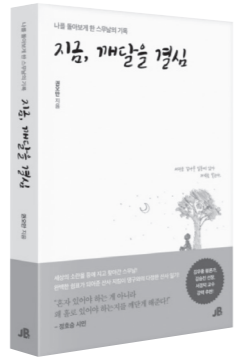
저자 권오만

경동대학교 메트로폴 캠퍼스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실천적·학문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하며 교육과 연구, 현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자연과학과 문학, 사유와 실천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는 현재 창작산맥 문학회 제6대 회장으로, 운동주의 문학정신을 계승하며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문학이 현실과 분리된 언어가 아니라 삶과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한 창작과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두물머리」, 「해남 도솔암」, 「삿별」로 창작산맥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고, 저서로는 「신선 두꺼비가 지키는 전통 사찰 이야기」, 「디자인과 철학의 공간 우리 곁」, 「잊혀진 문화유산 해자과 풍류 이야기」 등이 있다. 2026년 대한건축학회 특별상 소우운(장삼) 저작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산문집 『지금, 깨달을 결심』은 안식년의 시간 속에서 산사에 머물며 경험한 고요와 불행, 그리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한 내면의 질문들을 담아낸 기록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채움보다 비움, 익숙함보다 낯설 속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삶의 본질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결심에 대해 진정한 물음표를 던진다.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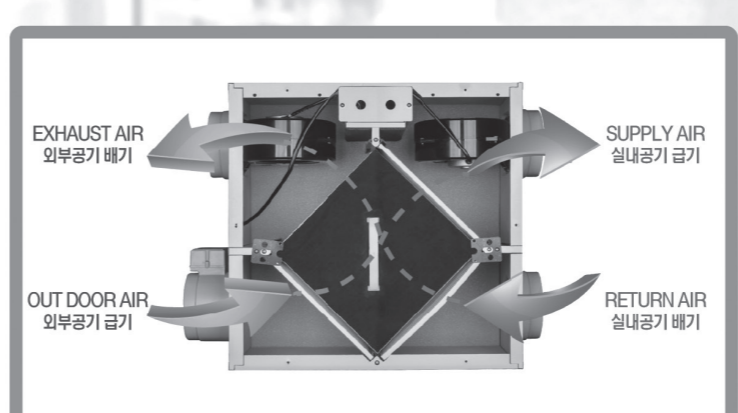
#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걱정 끝!

EXHAUST AIR  
외부공기 배기



OUT DOOR AIR  
외부공기 흡기

SUPPLY AIR  
실내공기 급기

RETURN AIR  
실내공기 배기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 김문수 의원, 코로나 세대 문해력 저하 우려

## 8개 시도교육청 3개년 연구 결과 발표... 가구소득·지역·다문화 배경 따른 학습격차

코로나19를 경험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학습격차 확대 가능성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정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교과역량과 신체건강, 사회적 역량, 정서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안·우울 수준과 비만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력과 사회성, 정서, 신체건강,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과 누적 결손을 추적·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 대구, 충북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이후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교육청이 추가로 참여해 총 8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했다. 연구는 동일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진급과 진학 이후에도 같은 학생들을 추적 조사했다.

참여 규모는 첫째 426개교, 1만 8711명에서 3차년도에는 1301개교, 3만 3934명으로 확대됐다. 3년간 누적 참여 인원은 9만 7909명, 참여 학교는 2699개교에 달한다. 연구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9억 2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을 주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한 3개 교육청의 주요 지표 분석 결과 국어 교과역량 점수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

기에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전 교육종단연구와 달리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책 제언에서도 대부분의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뚜렷한 악화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어역량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유의미한 하락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시기를 경험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해 중·고등학생의 문해력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습격차 확대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중등 수학의 경우 지역 규모와 가구소득, 다문화 배경, 코로나19에 따른 가정경제 영향 등 여러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 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습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효과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교과보충과 협력교사 지원, 학습 및 진로 컨설팅 지원 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이었으며, 학습결손이 큰 학생들에게서 뚜렷한 성과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학습 취약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 광양하이텍고 육상부, 밀양아리랑 육상대회 '금4·은1·동1'

## 이하은 2관왕 달성, 최지우·서예지 금빛 질주에 남고부 김정원 동메달까지

전남 광양하이텍고등학교(교장 임윤석) 육상부가 다시 한번 전국 무대를 휩쓸며 명실상부한 육상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광양하이텍고 육상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밀양아리랑 2026전국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고른 활약과 놀라운 성장세가 돋보였다. 이하은 선수는 여고부 멀리뛰기에서 5.72m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7종경기에서도 4251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필드 종목의 강자 서예지 선수는 여고부 세단뛰기에서 12.33m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멀리뛰기에서도 5.65m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트랙의 간판 최지우 선수 역시 여고부 400m 결승에서 55.81초의 뛰어난 기록으로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또한, 남고부



세단뛰기에 출전한 김정원 선수가 13.22m의 기록으로 값진 동메달을 추가하며 팀의 메달 릴레이에 힘을 보탤었다.

임윤석 교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매 경기 한계를 뛰어넘으며 학교의 이름을 빛내준 우리 선수들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선수를 목에 걸었다. 트랙의 간판 최지우 선수 역시 여고부 400m 결승에서 55.81초의 뛰어난 기록으로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또한, 남고부

선수들을 밀착 지도한 장학수 육상부 지도자는 "선수들이 훈련에 성실히 임해준 덕분에 트랙과 필드, 남고부와 여고부 모두에서 고르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세심하게 보완해, 하반기 최종 목표인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 여수교육지원청, 청정 여수 이미지 위한 환경정화활동

지난 6월 4일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은 오는 9월 개최를 앞둔 '2026 여수세계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여수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세계 각국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역 사회의 환경 정화에 기여하고 활기찬 박람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여수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이순신공원, 미평 산림욕장, 웅천 천수공원 및 장소, 성산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등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문태석 기자 2580news@daum.net

# 전남 보성고, '용문골 어른신 공경 행사' 개최

## 지역 어른신 20여 명 초청 공연·다과회 진행하며 따뜻한 정 나눠



전남 보성고등학교(교장 김문주)는 6월 11일 학교 인근 용문골 마을 어른신 20여 명을 초청해 '용문골 어른신 공경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경로효친 사상을 직접 실천하고, 지역사회 어른신들과 교류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지난 며칠간 자발적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공경의 마음을 담은 웃소리 제작, 공연 준비부터 다과회장 세팅, 어른이동 지원 등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청각실에

서 열린 1부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램, 발라드, 트로트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져 어른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 중간에는 어른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증정하고, 어른신들의 지혜와 덕담을 듣는 시간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진 2부 다과회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어른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배

우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문주 교장은 "10여 년 전 교사 시절 보성고의 '용문골 어른신 공경행사'를 새롭게 재해석해 추진한 것"이라며, "해마다 학생들이 효, 공경사상을 배우며 성장해 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도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부모 사랑과 어른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른신들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을 보니 대견하고, 덕분에 오랜만에 크게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두수 기자 2580news@daum.net

# 고흥 남양초, '2026 K-흥 페스티벌' 무대 수놓다

## 고흥종합문화회관서 열린 국악의 날 기념 국악가요와 풍물로 감동 선사

지난 6월 5일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는 '국악의 날'을 기념해 우리 가락의 멋과 흥을 나누는 'K-흥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국악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축제의 서막을 연 1부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에서는 고흥 남양초등학교 전교생 10명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작은 학교의 큰 열정을 보여준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날 두 가지 무대를 선보이며 실력을 뽐냈다.

첫 번째 무대인 '국악가요'에서는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전통 가락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에서는 '임실필봉농악' 공연이 펼쳐졌다. 전교생 10명이 하나 된 마음으로



로 만들어낸 힘찬 풍물 가락은 우리 전통 예술의 역동성과 신명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원은 적지만 무대를 꽉 채운 아이들의 열정적인 연주는 국악의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전통 가락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에서는 '임실필봉농악' 공연이 펼쳐졌다. 무대에 오른 남양초등학교 바체준 학생회장은 "친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습하며 국악의 매력을

깊이 알게 되었다"며, "많은 관객 앞에서 우리 가락을 직접 선보일 수 있어 무척 떨리고도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초등학교는 이번 페스티벌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체득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계속 다짐했다.

김종철 기자 2580news@daum.net

**100% 참자연 그대로**  
**보리, 현미 쌀국수**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는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 행사, 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 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 “학생 중심 경기교육으로 만들겠다”

##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고양 학부모와 만나 생활 밀착형 교육 현안 경청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6월 10일 고양시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통학, 학교, 학교 개방 등 생활 밀착형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학생 중심 경기교육으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고양 경청투어는 당선 이후 추진 중인 경기교육대전환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기대를 들겠다”를 주제로 고양시 한 카페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교육 주체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양지역 통학버스 운영 문제를 비롯해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간 학교 문제, 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족,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개방, AI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 학부모 소통 창구 및 네트워크 복원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통학과 학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비롯해 학교 시설 개방 확대 필요성, AI 디

지탈교과서와 태블릿 활용에 따른 학생 건강과 발달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안 당선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며, 통학과 학교, 학교 공간, 디지털 교육 문제를 학생의 생활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육행정이 학생 중

심,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전반을 학생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당선인은 “정의롭고 상식적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교육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를 단순한 민원인

이 아닌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안 당선인은 이날 고양에 이어 파주에서도 경청투어를 진행했으며, 경기도 전역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교육대전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 청소년 도박 근절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 수원제일중-수원팔달경찰서, 등굣길 맞춤형 예방 캠페인 전개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수원제일중학교(교장 하양근)가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수원팔달경찰서(서장 조현진)와 손을 잡고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제일중학교(교장 하양근)는 6월 2일 아침 등교 시간을 활용해 수원팔달경찰서, 화서문지구대우와 연합으로 ‘2026학년도 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 연합 캠페인 교육’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육청의 생활 교육 지침과 경찰서의 청소년 보호 대책을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된 것으로, 일회성 홍보를 넘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학교 구성원이 대거 참여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아침 8시 20분부터 진행된 캠페인에는 수원팔달경찰서장을 비롯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화서문지구대우이 직접 등굣길 최전선에 나서 학생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자치회(지도교사 진성민, 박소영) 중심 캠페인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도박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홍보 게시물이 중앙현관에 선보였으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리플릿 배포와 함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생활 지도도 전개됐다.

수원제일중 학생안전생활에 능부장 진성민 교사는 “청소년

도박은 학생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정과 학교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수원팔달경찰서와의 이번 연합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도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수원팔달경찰서 관계자 고서희 경사는 “수원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SPO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등굣길 주변 치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뜻을 모았다.

신상민 기자 ssm@

## 서울교육청,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화장실·급식시설 등 11개 단위사업 중심 노후 교육시설 개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월 4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화장실·급식시설·외벽·창호·방수·바닥·도장·전기·소방·냉난방·외부환경 등 11개 단위사업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립학교 전체와 사립 중·고·특수학교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에서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노후화가 심하거나 긴급한 시설 개선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학교 단위 중심의 우선순위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냉난방, 방수, 소방 등 시급한 시설 개선 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업 기준단가를 현행화하고 내용연수와 평가 배점표를 개선했다.

급식시설은 내용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방수 시설은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으며, 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시설 노후 중·고 사용 여건, 안전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방 중심의 시설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벽 부분개선 항목인 외단열 시스템과 패널을 새롭게 도입하고,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도 신

설했다. 또한 패널과 석재, 외단열 시스템의 개선 주기를 조정해 시설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 참여 검증단도 운영한다.

검증단은 실태조사 결과와 노후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상 학교 현장 확인에도 참여해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뒤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선 기자 kbs@

#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학생국제교육포럼 개최

### 경기도 12개교 학생 58명과 미국·대만·일본 등 해외 학생 42명 총 100명 참여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박숙열)이 지난 6월 6일 경기도 소속 고등학생들과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학생국제교육포럼(The 4th Student Global Education Forum)’을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자기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펼치는 협력 프로젝트형 원격 프로그램이다.

포럼에는 동투원외국어고, 원곡고, 백암고 등 경기도 내 12개교 학생 58명과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학생 42명 등 총 100명의 글로벌 인재들이 참여해 뜨거운 토론의 장을 벌였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전환: 어떻게 포용적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AI Transformation: How Can We Build an Inclusive Society?)’라는 주제로 사전 실행학습부터 본 행사까지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됐다.



오전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의 기초강연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어민 강사들의 패널 토의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사전 선택한 교육, 문화, 윤리, 경제, 안전, 환경, 인간성 등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주제로 학생토의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튜터와 학습 격차 해소 ▲알고리즘 편향성과 공정성 ▲디지털 디펜드와 인터넷 신뢰 문제 등 우리 사회

가 직면한 기술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깊이 소통했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이번 포럼은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학교의 국제교류와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 마을·교사·학생 협업으로 예술적 공간 탄생

## 시흥 함현중, '세상에 하나뿐인 벤치' 마을교육자치 교육환경개선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함현중 학교(교장 이미경)가 시흥 학교-마을교육협의회(6권역) 및 정왕4동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주민, 교사, 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시흥시 마을교육자치 교육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학교 안 공간을 마을공동체의 온기가 담긴 예술적 휴식처로 탈바꿈시켰다고 지난 6월 4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첫째, 지난 4월 25일 정왕4동 주민자치회 봉사 참여자들이 함현중학교를 방문하여 교내의 빛바랜 벤치 15개를 다듬는 그라인더 연마 작업을 실시했다. 주민들의 전문적인 손

길을 거쳐 매끄러워진 벤치 위에 흰색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얀 캔버스' 같은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둘째, 학교 내 정자의 탁자와 의자는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참여자들은 손수 사포질을 하며 정성스럽게 연마 작업을 마친 후 역시 흰색 페인트로 깔끔하게 도색하여 주민들의 봉사에 손길을 보냈다.

셋째, 이렇게 마련된 하얀 바탕 위에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졌다. 함현중학교 미술교사와 자율동아리 '미술쟁' 및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여러 차

레 머리를 맞대고 벤치 디자인을 구상했다. 학생들의 개성 넘치는 채색 작업을 통해 마침내 교내 벤치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디자인'을 입은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흥 6권역 학교-마을교육협의회에서 제안한 함현중학교의 교육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를 귀담아듣고 적극 공감한 정왕4동 주민자치회에서 2026년 시흥시 마을교육자치 활성화사업에 정왕4동 교육환경개선 프로젝트 '앞고 싶은 함현중 마을 쉼터 만들기'를 신청하게 되었다. 사업이 선정되면서 온 마을이 함께 실천하는 아름다운 프로

젝트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봉사에 참여한 주민들, 직접 색칠한 학생들, 이를 이용하는 마을공동체 모두 공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경 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교육공동체로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마을교육자치의 뜻깊은 모범 사례"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땀 흘려주시는 정왕4동 주민자치회와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 안산원곡초, 상호 존중 다문화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으로 감수성·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 안산원곡초등학교(교장 김주영)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 다문화교육 주간'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학년별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상호문화 존중 우수 꾸미기 ▲고려인 이주 배경 역사 배너 전시회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문화교육 주간을 운영했으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주배경 학생 중 약 45%를 차지하는 CIS계열(독립국가연합)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고려인 이주 역사 교육도 함께 운영했다. 학교 중앙 현관 로비에 '고려인 이주 배경 역사 배너 전시회'를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고려인의 삶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주와 공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급별로 역사 속에 드러난 조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과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년별 특성에 맞는 세계 문화 공예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1~3학년은 한국·일본·중국·베트남 전통 놀이 및 공예 활동을, 4~6학년은 세계 명화 선캐처 만들기, 세계 전통 의상 디플블럭 만들기, 세계 여러 나라 음식 클레이 자식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인성 대화와 상호문화 존중 문구를 함께 활용해 학생들의 공감과 배려의 태도를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교육 주간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안산원곡초를 졸업한 고려인 출신의 대학생 멘토 강사 2명

과 이중언어 중국어 강사를 멘토로 초청해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행사를 실시했다.

한국 적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한국어 공부의 필요성,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 방법, 외국인 특별전형 및 다문화전형 입시 방법 등을 소개했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속에서 멘토-멘티가 겪은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멘토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격려와 조언이 이어졌다.

안산원곡초 관계자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문화예술 체험 문턱 낮춰

## 방문 어려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예술놀이터' 8월까지 운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배미란)이 체험교육원 방문이 어려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하! 찾아가는 예술놀이터'를 운영한다.

12일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이

번 프로그램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68개 기관 총 3,490명의 유아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하! 찾아가는 예술놀이터'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핵심 가치인 자유, 탐구, 상상, 도전, 협력을 반영하여 구성했으며 유아들이 놀

이와 예술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아가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이며 놀이를 즐기는 놀이체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감각을 탐색하는 오감놀이

▲전래동화를 각색한 공연 '청구리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유아들이 놀이와 예술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스스로 표현하고 탐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즐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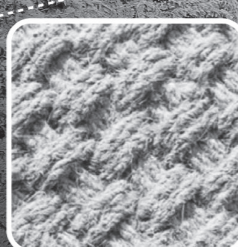
**흥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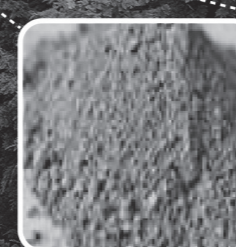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항균**  
포즐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유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 시흥능곡고 한우리반, 편견의 벽 허물다

## 장애·비장애 학생 '원팀'으로 보치아경기 출전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시흥의 장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시흥 학교스포츠클럽한마당'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체육활동을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진정한 통합교육의 장이 펼쳐졌다.

경기도 시흥의 시흥능곡고등학교(교장 이재선) 통합스포츠 원팀은 '2026 시흥 학교스포츠클럽한

마당' 보치아' 종목에 출전해 장애·비장애 학생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과정을 만들어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던지는 경기 방식으로 신체적 제약을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다.

이번 출전은 단순한 경기 참여를 넘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이

해하는 진정한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장이 됐다.

보치아 경기에서 백색의 표적구를 향해 적색과 청색의 공이 어우러지듯, 일반학생 학생에게는 나와 조금 다른 친구를 배려하고 진정한 표용을 배우는 성장이 이뤄졌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는 학교와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우리반 학생은 "서로 이야기하고 작정을 짜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서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고 말했다.

2026 시흥 학교스포츠클럽한마당에서 단진 보치아 붙은 단순한 승리를 위한 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어주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과 통합의 동그라미였다.

신상민 기자 ssm@

#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찾는 여행"

## 양평 서종초·수입초 '북한강 뗏목 건너기' 마무리

양평 서종초등학교(교장 김영주)와 수입초등학교(교장 박상혁)는 6월 12일 서종면 수입리 부근 북한강에서 3개월 간의 '북한강 뗏목 건너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3월 중순부터 탐구성, 부력 실험 및 구조에 대한 이해, 뗏목 설계, 뗏목 제작 전 과정을 스스로 기획하고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임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지치 않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패들링(노젓기) 교육 등을 제공하였다.

프로젝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기에 때로는 힘들고 팀원끼리의

갈등이 커지기도 했으며, 뗏목을 완성하기까지 계속된 수정과 보완은 지치게 만들기도 했다.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를 들여다 보고,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도움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려하고 무엇을 협력해야 하는지 깨달아 갔다.

완성된 뗏목을 북한강에 띄워 중단하는 프로젝트의 끝내기 마무리 활동은 많은 학부모님의 응원과 학생들의 힘찬 노젓기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약 1.5km의 구간을 지지치 않는 노젓기로 목적지까지 모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도착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 및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큰 환호성과

박수로 학생들의 도전과 마무리를 축하했다.

북한강 뗏목 건너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수입초 홍지우 학생(학생자치회 부회장)은 "처음 준비할 때 친구들이랑 마음이 잘 안 맞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로 맞춰 가면서 뗏목을 잘 완성하여 목적지까지 잘 타고 와서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를 함께한 양평교육지원청 여미경 교육장은 "최근 방한한 세계적인 CEO 젠 스타일은 '위대해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며, 실패를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이를 교육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 하는데, 오늘 마무리한 서종초등학교와 수입초등학교의 북한강 뗏목 건너기 프로젝트는 이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는 이상적인 학생활동일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신상민 기자 ssm@



# 수익 년 원시바다가 빛어낸 호수염, 학교급식 품격 높여

### 김문찬 안데스 청염 대표 “미래세대 건강 위한 안전 식재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서 시작된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과 올바른 식문화를 형성하는 교육의 장이 기도 하다. 특히,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중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축산물, 수산물 등 안전한 식재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인 '소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금은 국과 찌개, 반찬, 김치 등 학교급식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식재료다. 음식의 맛을 좌우할 뿐 아니라 식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눈에 띄지 않는 재료이지만 좋은 급식의 출발점에는 좋은 소금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 바로 DACO 안데스 청염이다. 안데스 청염은 남미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의 청정 염호에서 생산되는 천연 호수염이다.

수억 년 전 원시바다의 흔적을 간직한 염호에서 자연 증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소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축적한 미세칼과 순수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안데스 산맥의 고산 염호는 산업화와 해양오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청정 환경에서 생산된다



는 점은 안데스 청염만의 차별화된 가치라 할 수 있다.

DACO 안데스 청염을 공급하는 김문찬 대표는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재료라면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비만 증가와 영양 불균형, 가공식품 소비 확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공공 안전망 가운데 하나이며,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의 품질은 화려한 메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식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신뢰와 정성이 모여 건강한 급식을 만들고, 건강한 급식은 결국 건강한 미래세대

를 만들어 낸다.

안데스 청염은 깔끔하고 담백한 맛으로 음식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며, 위생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은 물론 병원급식과 기관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대한 기업의 철학이다. DACO 안데스 청염은 안전한 식재료를 통해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김문찬 대표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 건강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다”며 “안데스 청염이 학교급식 안전 식재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익 년 원시바다가 남긴 자

연의 가치, 안데스 산맥의 청정함이 빛어낸 천혜의 호수염, 그리고 미래세대 건강을 향한 기업의 책임감.

좋은 식재료가 좋은 급식을 만들고, 좋은 급식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 학교급식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건강을 바꾸고, 아이들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DACO 안데스 청염이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의 미래세대 건강 증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황요규 기자 hog@

**김문찬**  
 ◇ DACO(다코) 안데스 청염 설립 경영 대표  
 ◇ 금령정학회 사무국장 겸 등기이사  
 ◇ 부산광역시 테니스협회 부회장  
 ◇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 자문위원  
 ◇ 부산 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학교 탄소중립 시대 선도... 지붕위에 미래 보인다

###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사업 2030년까지 태양광 종합 컨설팅 본격화

교육부가 추진 중인 '햇빛이음학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학교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에너지전환 거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지난 5월 19일 밝혔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이를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미래형 교육 정책이다.

특히, 2026년 시범사업에는 약 4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국 400개교가 참여할 예정으로, 학교 현장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국공립학교 가운데 태양광 설비를 갖춘 학교는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학교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량이 높은 대표적인 공공시설로,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전기요금 절감 사업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지붕 위 태양광 설비를 통해 햇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의미를 생활 속 실천 교육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학교를 에너지전환의 살아있는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는 미래형 교육정책"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과 탄소저감 효과를 경험하며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누수와 화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 안전진단을 선행하고, 지붕 훼손을 줄이는 무타공 공법과 고성능 방수 마감 등을 적용한다. 또한 아크(Arc) 차단 장치 설치와 정기 점검 강화 등 학교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발전량과 탄소저감 효과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시각화하고, 과학·사회·환경 교과와 연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가장 현실적이고 생산한 기후위기 대응 학습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이와 함께 학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퓨처솔라리는 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정책에 대응해 학교 맞춤형 태양광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학교별 특성과 교육환경을 반영한 설계·시공·운영 통합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퓨처솔라리는 사전 구조 안전진단, 발전량 분석, 방수·누수 예방 설계,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체

계 수립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건물 구조와 전력 사용 패턴, 옥상 환경 등을 분석해 최적의 설치 용량과 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무타공 공법과 고효율 모듈 적용 등을 통해 시설 훼손을 최소화하는 안전 중심 시공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발전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기후환경교육 연계 콘텐츠 운영 방안까지 함께 제안함으로써 학교가 단순한 전력 생산 공간을 넘어 학생 참여형 탄소중립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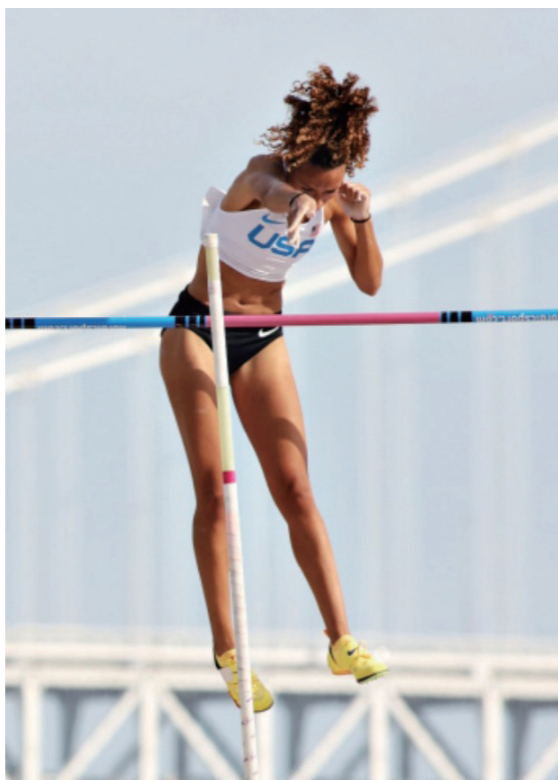
㈜퓨처솔라 관계자는 "학교 태양광 사업은 단순한 발전 설비 구축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설치 가능한 모든 국공립학교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요규 기자 hog@



미국의 토리아나 토마스(Toriana THOMAS, 24)



#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시니어 여자부 9년 만에 대회신기록

### 시니어 남자부 日 마사키 예지마, 2024년 대회 이후 우승 '재탈환'

대한육상연맹(회장 육현표)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육상연맹(회장 김성주, BNK부산은행)이 주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BNK부산은행이 후원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 부산광역시해변공원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6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2026 Busan International Pole Vault Meeting)'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카자흐스탄, 대만, 태국 등 장대높이뛰기 강국을 비롯한 15개국 40여 명의 국내외 우수한 자국을 대표하는 남녀 선수들

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5월 30일 오후 4시부터 대회 첫 경기로 열린 '시니어 여자부' 경기에서 9년 만에 새로운 대회기록이 탄생했다.

국제대회에 처음 참가한 미국의 토리아나 토마스(Toriana THOMAS, 24)는 도전 높이 4m00에서는 1차시기에, 4m10과 4m30은 2차시기에 넘으며 안정된 경기 운영을 펼쳤다.

이어 4m45와 4m55는 각각 3번의 시기 중 마지막 시기인 3차시기에 가까스로 성공해내면서 관중들의 환호성과 갈채를 이끌어 냈다. 이후 토리아나 토마스는 개인최고 기록을 넘어서는 4m60에 도전했

지만, 이루지 못하고 내년 대회로 미뤄야 했다.

토리아나 토마스의 시즌기록은 4m48, 개인최고기록은 4m57이다.

시상식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토리아나 토마스는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 1위를 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관객들이 굉장한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뿌듯했다. 부산과 이 대회 모두 처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들과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렘, 실제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서 열린 마음으로 대회를 기다렸다. 응원에 주신 관객분들, 저를 응원시켜 주신 지

도자분 그리고 제 동료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첫 국제대회의 기쁨을 전했다.

중전 대회기록은 '용두산공원'에서 열린 2017년 러시아의 Olga MULLINA(당시 24세)가 세운 4m50이다. 이 대회를 '광안해변공원'으로 옮겨와 개최한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에서는 첫 대회신기록이다.

시니어 여자부 2위는 카자흐스탄의 풀리나 이바노바(4m20), 3위는 인도네시아의 디바 레나타 자야디(4m20)가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이어 오후 8시 1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펼쳐진 시니어 남자부 경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태국의 팻사퐁 암사망(29)과 2024년 챔피언인 일본의 마사키 예지마(27)의 열린 접전으로 부산을 방문한 국내의 관광객과 부산시민들에게 경기 내내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장대높이뛰기만의 묘미를 제공했다.

도전 높이 5m20과 5m40 모두 1차 시기에서 성공한 두 선수의 '라이벌 경기'는 마지막 5m50 도전에서 2024년 챔피언인 일본의 마사키 예지마는 1차 시기, '디펜딩 챔피언' 태국의 팻사퐁 암사망은 2차 시기에 바를 넘으며 승부가 갈렸다. 3위는 5m40을 기록한 후주의 재다우니(25)로, 함께 시상대에 섰다.

마사키 예지마는 인터뷰에서 "2024년에는 제가 우승을 했고, 작년에는 팻사퐁선수가 1위를 했었

는데, 올해 다시 둘 다 박빙으로 승부를 하게 돼서 상황은 조금 힘들고 피곤했지만, 비가 왔던 지난 대회와 달리 올해는 선선한 날씨와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경기를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또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했다. 또, 관객들이와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도 했지만, 선수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해 주셔서 우리 선수들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뒀 수 있었다. 그래서와 주신 모든 분들께 일본어로는 '아리가토', 한국어로는 '감사합니다'를 전하고 싶다."

부산 대표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인 '2026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2026 Busan International Pole Vault Meeting)'의 시작은 2009년 국내 단일종목 최초로 대

회가 개최됐다. 2010년 세계육상연맹의 승인을 받은 국제공인대회로서, 2019년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휴양지인 광안리해변공원 야외 특설경기장에서 올해까지 총 15회차 국제대회(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미개최) 개최의 역사를 가진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공인대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국내 개최 국제대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기록 탄생, 참여관중을 포함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 다양한 각국 선수의 참가로 인한 스포츠교류 등에 둔다면, 이번 대회는 그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받게 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변에서 전개되는 차별화된 경기장, '광안해변공원 개최 국제대회'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황요규 기자 hog@

# 인천대중예술고, 생생한 현장 노하우 배운다

### 배우 고경표 초청 '진로 멘토링' 특강 성료... 영상 제작·연기 갈증 해소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교장 유상범)는 지난 8일 공연실습장에서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대중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고경표를 초청해 '진로 멘토링' 특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래의 대중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직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전하고, 예술적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는데, 먼저 1부에서는 진로 및 꿈에 대한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쏟아지는 돌발 질문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슬럼프 극복법, 현실적인 위로와 충고까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진솔한 대화가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대중예술고 학생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교과서 밖의 생생한 현장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으며, 현직 전문가와의 밀착 소통을 통해 대중예술인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를 기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

들이 평소 품고 있던 영상 제작 및 연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교육 환경 내에서 전공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소중한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강에 참여한 영상제작과 한 학생은 "영화 감독을 꿈꾸면서 타

인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고 또 언제 내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하는지 늘 고민이었다"며, "배우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독으로서 주관을 갖고 촬영 현장을 운영하되 타인의 의견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바탕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상범 교장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준 고경표 배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전국 최초의 공립 대중예술 특목고 전환을 앞둔 만큼, 앞으로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고 각자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기회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송명초, 전교생·학부모 함께하는 체육대회

### 송명 아리우리 축제 성료... 교권 보호 및 교사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도

인천송명초등학교(교장 최은미)는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전교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할 '진정한 참(眞)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단순한 경쟁 중심의 행사를 넘어 학년 간 소통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선후배가 함께 팀을 이뤄 참여하는 다양한 경기와 협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학년의 경계를 넘어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체험하며 학교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참관 공간을 운영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뛰고 웃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학생들은 가족의 응



원 속에서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더불어 약 9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송명초 학부모회 주관으로 '교권 보호 및 교사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도 진행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겼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꽃 모양을 완성하는 활동을 진행해 선생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이동욱 학교운영위원장은 "아이와 함께 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든 것도 기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기는 선생님들에 직접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은미 교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부광초, 안전·경험 모두 충족하는 체험학습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대체 '교내 체험학습의 날' 운영

인천부광초등학교(교장 이석구)는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불안과 문제 의식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학년별로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해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내 체험학습의 날' 주간을 계획해 운영했다고 6월 8일 밝혔다.

'교내 체험학습의 날' 주간 첫날 체험학습에 참여한 4학년 학생들

은 푸드테라피 활동을 통한 친구와 나의 감정 찾기, 친구 칭찬하기 활동을 하며 친구 사랑의 마음을 다지고, 환경 자원 순환 교육 체험의 시간을 통해 제사용, 재활용, 새 사용의 개념과 필요성을 배웠다.

특히, 환경 자원 순환 교육 활동에서는 양말 제조과정에서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해 직접 네일클로버, 카네이션 키링 만들기, 셔플북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했다. 이어서 수학 놀이 체험활동 시간에는 다양한 수학 보드 게임 활동을 통해 놀이를

이용한 즐거운 수학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이석구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만은 교과서 공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환경 사랑과 친구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4학년 이모 어린이는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 즐거웠고, 특히 친구들과 어울려서 만들기도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4학년 부장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의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영종고-인천중산고, 연합 환경 정화

### '이음과 채움 프로젝트' 첫 발... 전소천 쓰레기 수거



인천영종고등학교(교장 이재성)와 인천중산고등학교(교장 정찬진) 학생자치회가 연합하고 기획해 기대를 모았던 연합 자치 활동 '이음과 채움 프로젝트'가 마침내 본격적인 실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양교 학생자치회는 6월 6일 영종 지역 전소천 일대에서 첫 번째

연합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 14명은 무더위 속에서도 전소천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전소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종 지역의 생태 보존을 고민하고 실천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양교 학생들은 전소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하천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지역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천중산고 학생부회장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생태 자원인 전소천을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킬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학생자치의 진정한 역할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지도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현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삶과 삶이 연계된 교육이 실현되는 것 같아 의미 있었고, 학생들이 구체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 동산중, 지역연계 교육과정 실현

### 진로페스티벌 서흥초·서림초·송현초 각각 80여 명 참여

인천 동산중학교(교장 석영환)에서는 지난 5월 29일 진로페스티벌이 열렸다.

2013년 '진로난장(進路亂場)'이라는 이름으로 인천 남부 진로진

학 교사들의 집단 지성과 동산중학교의 지역 연계 교육과정 정착 의지가 만나 시작한 이 행사는 10년이 지나 인천비즈쿨 운영교와 지역의 초등학교, 마을 유관기관

등 50여개 기관을 초청해 꾸준히 그 역사를 만들어 왔다.

올해는 서흥초, 서림초, 송현초에서 각각 80여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부스에서 체험활동을 했는데 비즈쿨 거점학교 사업의 방향에 발 맞춰 인천용원남초에서는 200여 명의 학생들까지 전세버스를 통해 행사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초등학생들에게 동산중학교를 소개하며 체험하는 단 일 학교의 행사에서 한 발 나아가, 동구의 마을 연계 기관 및 인천 비즈쿨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학교들이 소중한 시간과 교육력을 들여 진정한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실현한 의미 있는 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안용섭 기자 ays@

# A.T PROGRAM (AI + Touch My Dream)

### "내 아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검사"

**M.I.T**  
마음지능검사  
(Mind Intelligence Test)

- 1 100가지유형 기질검사
- 2 자기주도학습태도검사
- 3 강점지능검사
- 4 성품검사

**M.E.T**  
마음에너지검사  
(Mind Energy Test)

- 1 유전자지문적성검사
- 2 학업스트레스검사

**With You Program**  
함께라면  
(With You Program)

- 1 진로프로그램
- 2 소통프로그램
- 3 마음알아주기 프로그램

# 4인성 기반 효 인성교육 장학 자료 제작 보급

# 동부교육지원청, 청렴 티키타카로 세대 간 공감 나눠

### 대전교육청, 동행 성장 프로그램 연계 학교급별 맞춤형 성장 일지와 게시 자료 지원

대전시교육청은 실천 중심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동행 성장 4인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2026 학년도 효, 인성교육 장학 자료 (2026-2호)'를 개발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성장과 실천을 통해 바른 인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성장, 공감, 공동체, 책임의 4가지 인성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급 자료는 '우리, 해봄! 학교' 인성 성장 일지와 학급 환경 게시 자료인 '인성 꽃 바꾸니'로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됐다.

인성 성장 일지는 학교급별 수준에 맞추어 제작되어 학생 스스로 인성 실천 내용을 기록하고 돌아보며 성장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성 꽃 바꾸니'는 학생들이 실천한 인성 덕목을 꽃 카드에 적어 감정을 소통하고,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며 배려와 상호존중의 공동체 문화를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두 자료는 '예유랑' 인성교육포털(효교육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인성 성장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공모전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인성 성장 실천 사례와 '나, 봄! 교실', '우리, 해봄! 학교' 운영

사례 등을 발굴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연계한 4인성 기반 인성교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과 성찰을 통해 바른 인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따뜻한 품성과 공동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원호 기자 whh@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직급과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 프로그램인 '청렴 티키타카: 세대 간 공감 나누기'를 6월 2일부터 12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티키타카(Tiki-Taka)'는 일상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부공무원과 하위직 직원들이 격이 없이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4급 이상 1명과 7급 이하 4명을 한 조로 편성하여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 세대 간 인식 차이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



졌다. 특히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청사 인근 카페에서 진행해 한층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청렴 티키타카'는 세대와 직급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참여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호 기자 whh@

## 대전교육정보원, AI 교육으로 디지털 미래사회 준비

###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 학생 눈높이 맞춤형 AI 체험교실 운영

대전교육정보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관내 중학교 11교와 고등학교 9교 등 총 20개교를 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 AI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꿈과 야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교육 현

장과 연결하여 학생들이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보다 가깝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I체험 교실은 AI 분야 전문가와 희망 학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특강과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였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현장 AI 전문 연구원과 수원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와 활용 사례, 과학기술과 AI의 융합, 미래 사회의 변화와 진로 방향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

특히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실생활과 연구 현장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AI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노파도 드론을 조종하는 체험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인공지능이 게임을

우원호 기자 whh@

만드는 과정을 보며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전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대전교육정보원 이영주 원장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역량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초 소양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대전샘머리초, 문학적 감수성 키운다

### 가족이 함께 쓰는 동시 '샘머리 백일장' 개최

대전샘머리초등학교는 독서인문교육주간을 맞아 6월 10일 샘머리관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샘머리 백일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샘머리초등학

교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는 '2026학년도 독서인문교육주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대전샘머리초등학교는 이 기간 동안 학년별 독서 골든벨, 도서관 연례 해지 마법사, 꿈은 JOB

는 독서 등 다채로운 독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백일장은 '가족이 함께 쓰는 동시'를 취지로 일상 속에서 문학을 매개로 소통하며 가정 내 인문학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사전 신청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가족이 참여한 이번 백일장은 일상 속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과 '친구'를 시제로 진행됐다.

우원호 기자 whh@

##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호국보훈 감사 콘서트

###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상이군경·참전용사 찾아가는 음악회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1일 오후 2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새소리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호국보훈 감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참전용사 등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가 주최하고 상이군경체육회와 보훈재활체육센터가 후원했다.

이날 공연에는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클래식 기타, 성악, 관악, 현악, 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학생들은 클래식 기타 독주 '로시타(Rosita)'를 시작으로 트롬본 독주 '샤우팅 라이자 트롬본(Shouting Liza Trombone)', 여성 중창 '도레미 송(Do-Re-Mi Song)'과 '넬라 판타지아(Nella Fantasia)', 클라리넷 독주 '클라리넷 폴카(Clarinet Polka)', 소프라노 독창 '홀로아리랑'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현악 사중주 'Waltzing Matilda'가



무대를 이어갔으며, 공연의 마지막은 새소리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으로 장식됐다. 합창단은 '고향의 봄', 'Baba Yetu', 'Eres Tu', '아름다운 나라'를 차례로 선보이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마지막 곡인 '아름다운 나라' 무대에 앞서 한 학생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상이군경 주성철 씨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

기, 감동을 전하는 음악인으로 자리나길 바란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담긴 공연을 다시 보고 싶다. 멋진 공연을 준비해 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주미하 교장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과 감사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원호 기자 whh@

## 대전만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풍선쇼 관람

### 지역 어린이집 연계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대전만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6월 11일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풍선쇼를 관람하는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풍선을 따라 펼쳐지는 모험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미리 함께 읽으며 상상력을 키우고, 독서활동과 연계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유아들은 공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풍선 작품을 관찰하며 여러 형태의 풍선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기대감과 즐거움을 느꼈다.

또한 유아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되어 더욱 높은 관심과 몰입을 이끌어냈다.

우원호 기자 whh@

동화책 읽기와 공연 관람을 연계한 이번 활동은 유아들이 동화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경험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해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증진할 수 있었다. 풍선이라는 친숙한 주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모두의 흥미를 이끌어냈으며,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 보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 드론농구(DRONE BASKETBALL)



##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농구"

###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 경기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공격 제한 시간
  - 24초 이내 득점
  - 시도 실패 시 공격권 전환
  - 빠른 판단 필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의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장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세계드론스포츠연맹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전화 +82)10-5080-9116, -

이메일 : wdsf9116@naver.com)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rone\\_sports](https://blog.naver.com/drone_sports)





국무총리상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정부 조달청장 표창 |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 녹색인증 유공포상

###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 조달청 혁신제품 | 성능인증 | GS인증 1등급 | 녹색기술인증 | 친환경 | 환경표지인증 | 산업융합혁신제품 | 우수발명품

##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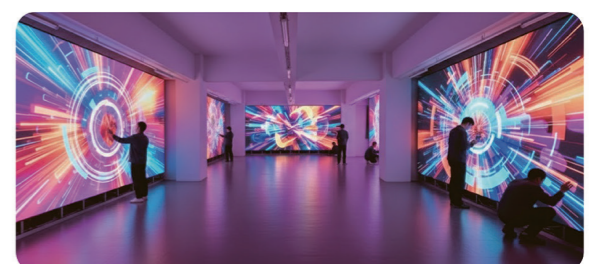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북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대표전화

1600 - 6187

### [전국 및 글로벌 지사·공장·물류]

- 부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 대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니처 749호
- 광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 제주 | 제주시 서문로 33

- 미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 공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

# 부산 최초 재개교 신연초, 새출발 알려

## 교육공동체와 함께 재개교식... 국제교류 수업·특색교육 체험 통해 미래 비전 공유

부산 남구 신연초등학교(교장 변정현)는 6월 10일 교내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재개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최초의 재개교를 기념하는 자리로, 단순히 학교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신연초등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했다.

신연초등학교는 이번 재개교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아이·중·은 행복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 의지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눌 예정이다.

재개교식은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분행사, 특색교육 관람, 테



이프 커팅식, 야외 이벤트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연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해외 학교 및 기관

과의 화상 국제교류 수업을 공개하며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미래형 국제교육 현장을 직접 선보였다.

또한, 교내 특색 공간을 활용한 '신연 보물상자 찾기' 프로그램을 운

영해 재개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했다.

신연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휴교했던 학교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노력, 그리고 지역 내 교육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다시 문을 연 부산 최초의 재개교 학교다. 학교는 도시 재생과 교육 재생이 결합된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변정현 신연초등학교장은 "부산 최초 재개교라는 새로운 출발에 함께해 주신 교육가족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이 자긍심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꿈을 키워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 김석준 부산교육감, 소년체전 우수선수·유공자 격려

## 금 50개 등 139개 메달로 역대 최고 성적... 선수·지도자 등 헌신에 감사 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11일 오후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기념 우수선수(팀) 및 유공자 격려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격려회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부산 체육의 새 역사를 쓴 선수들과 지도자, 시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0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51개 등 모두 139개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역대 최고의 결실을 거뒀다. 특히 25년 만에 안방인 부산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전국 종합 3위라는 위업을 달성해 역대 최고 성적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장식했다.

행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과를 시작으로 인사발, 상장 및 표창 수여, 격려사, 축하 공연, 만



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석준 교육감은 각 종목 대표를 18명의 학생선수에 대해 격려금 증서를 전달하며 성과를 축하했다.

또, 선수지도에 헌신한 지도자와 부산시체육회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장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축하 공연으로 로시니 오페라의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와 표창 수여, 격려사, 축하 공연, 만

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빛낸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체육 인재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ljh@

# 6·25 참전 75주년 에티오피아 강뉴합창단 부산 초청

## UNPECS사회적협동조합·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 공동 추진 국제교류 행사 열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 간 국제우호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국제교류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다.

UNPECS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희경)과 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 NGO '따뜻한 하루'가 공동 추진하는 '2026 강뉴합창단 한국 초청 국제보훈·평화 프로젝트'가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참전용사 후손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함께 평화와 우정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강뉴합창단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용사들의 후손인 아동·청소년 40명과 지도자 5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 방문 기간 중 부산에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머물며 다양한 보훈·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단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역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행사, K-컬처 체험, 평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강뉴합창단은 평화와 희망을 주제로 한 특별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양국의 우정을 미래세대가 이어가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로, 강뉴부대는 총 6037명의 장병이 참전해 대

한국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 강뉴부대는 전쟁 기간 단 한 번도 진지를 내주지 않은 전설적인 부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한·에티오피아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UNPECS사회적협동조합 김희경 이사장은 "이번 강뉴합창단 부산 초청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국제보훈 프로젝트"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뉴부대 참전용사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해 선대의 희생이 만들어낸 오늘의 대한민국을 체험하고 한국 청소년들과 우정을 나누는 과정은 국제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평화와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글로벌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

신은 대한민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역사"라며, "강뉴합창단의 부산 방문이 양국 미래세대 간 우정과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국제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은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품은 국제평화도시"라며, "이번 행사가 국제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의 우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초청사업은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미래세대가 직접 체험하고 이어가는 특별한 국제교류 사업"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 평화와 국제연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가보훈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협력 아래 추진되며, 대한민국의 국제보훈 외교와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문화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뉴합창단의 부산 방문은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미래세대가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뜻깊은 여정으로, 국제보훈과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유기 기자 hog@

# 시민 추억 담은 기획전시 만든다

## 부산교육역사관, 7월 5일까지 시민 참여 설문조사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분관장 최은주)은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 하반기 기획전시 '가제'공간으로 읽는 부산교육' 준비를 위한 시민 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학교 공간에 대한 기억과 추억, 소장자료를 발굴해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의 시선에 서 부산교육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전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가 기억하는 학교 공간은?'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교실, 운동장, 매점, 도서관 등 기억에 남는 학교 공간과 그곳에 얽힌 추억, 감정, 에피소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옛 학교생활 사진, 교복, 도시락, 학용품 등 추억의 물품에 대한 전시 참여 의사를 함께 접수한다.

역사관은 검토를 거쳐 대어 또는 기증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해 전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네이버폼(<https://naver.me/FiPoLcdd>)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단순 설문 참여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다만 사진이나 물품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후 협의를 위해 연락처를 수집한다.

수집된 내용은 2026년 하반기 부산교육역사관 기획전시 '공간으로 읽는 부산교육(가제)'의 전시 콘텐츠 구성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정현 기자 ljh@

# 부산교육청, 환경체험 한마당 운영

## 전포동 놀이마루서 에코쥬밍 등 프로그램 다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환경교육주간과 연계해 6월 13일 부산진구 놀이마루에서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구를 바꾸는 우리, 2026학년도 환경체험 한마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13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유·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인디밴드 '휴고'의 식전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36개의 환경체험 부스,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

전 오픈 토크', 부산청소년환경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 토크 골든벨'과 '에코쥬밍 챌린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환경체험 부스에는 생태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와 탄소중립 선도 학교, 희망학교 등이 참여해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태전환 등을 주제로 3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이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정현 기자 ljh@

2026

캐나다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

**국내유일  
프로그램**

외교부  
해외유급인턴십  
제 2024-165호-001호
 고용노동부  
국외유급인턴십  
서울 중구 제2021-26호

## 어학연수 가격으로 해외 인턴십까지! 한방에 해결!

**참가자격**

나이 : 만 18세 ~ 35세  
지원 조건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걸림 사유가 없는 자  
프로그램 기간 : 3개월~18개월

**업무 분야**

Sales, Marketing, Office Job, Bank, Retail Shop, Airport(Duty Free), Hotel, Resort, Restaurant, Travel Agency

**근무조건**

시급 : CAD \$17.30  
예상 월급 : 주 30시간 근무 : 약 230만원  
                  주 40시간 근무 : 약 305만원

취업 분야 : 비즈니스, 마케팅, 호텔, IT, 리테일 등

**캐나다 인턴십 배치 회사**

- Indigo · IKEA · Starbucks · H&M
- Roots Canada · Polo Ralph Lauren
- Canucks Entertainment · Best Buy
- Avis Budget Car Rental · Dufry · CB2

**프로그램 포함사항**

- ☑ 1:1 전문가 상담 및 수속 진행
- ☑ 출국 전 2개월 영어제공 (온라인)
- ☑ 출국 전 / 현지 오리엔테이션
- ☑ 어학연수 3~5개월 (영어 실력에 따라 차등)
- ☑ 현지 취업 트레이닝 3~4개월
- ☑ 현지 기업 잡 매칭

★ 출국 전 2개월 영어제공은 국내유일! ★

### 어학연수 + 해외인턴십 + 워킹홀리데이 ALL IN ONE 프로그램

문의전화 **051.914.5733**

(주) 매경에듀케이션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7  
문용빌딩 2층

**합리적 비용**  
어학연수 가격 그대로!

**해외 경험**  
글로벌 커리어의 시작!

**취업 연계**  
현지 기업 취업 지원!

**체계적 관리**  
전문가의 1:1 맞춤 관리!

# 충북교육청, 고교학점제 학부모 이해 높인다

### 계열별 과목 선택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상세 안내 등 학부모 설명회 개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3일 10시,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 540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우리 아이 과목 선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선택 과목 수강 신청을 앞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이해'를 주제로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진로·학업 설계 방법, 진로 미결정 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방법,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학부모가 희망

계열에 따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참여한 가운데 계열별 과목 선택 방법과 선택과목 이수 사례, 학습 방향 등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희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인 만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자녀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함께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충북학생수련원, 초등학생 대상 무료 수영교실 운영

### 22일 11시 자동추첨 통해 선발... 기초 동작부터 자유형·배영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원장 최영미)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충북학생수영장에서 초등학생 3~6학년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학생 수영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영교실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학생들이 물과 친숙해지고 기초 수영 능력과 수상 안전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수영교실은 학생 수준에 따라 초급·중급·상급·고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기초 동작 습득부터 자유형·배영·접영 등 영법 숙달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과정 이수 후에는 수준에 맞는 상위 과정으로 연계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영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영교실은 1기당 2개월 과정으로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강습은 회당 50분 내외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은 오후 4시와 5시 강습 가

운데 희망 시간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2일까지이며, 충북학생수영장 누리집(www.cbstc.go.kr/pool)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정별 모집 인원과 운영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강생은 22일 오전 11시 자동 추첨으로 선발한다.

최영미 학생수련원장은 "여름철 수상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학생들이 체계적인 수영 교육을 통해 기초 체력과 수영 능력을 기르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상 안전 역량도 함께 키우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윤건영 충북교육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 강화"

### 기획회의서 생명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강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2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및 생명존중 정책과 연계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어디서나 운동장'을 통해 몸근육을 기르고, '언제나 책방' 독서활동으로 마음근육을 키우는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학생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예방과 발견, 지원, 회복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119'와 '관심x연365' 활동을 통해 학생들



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생각과 고민을 폭넓게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과 생명존중 프로그램' 연수를 운영하겠다고며 교사들이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학교 현장에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포용의 충북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흥덕고, 제1회 졸업생 타임캡슐 20년 만에 개봉

### 졸업생 50여 명 학창 시절 추억 되새기고 학교 역사와 전통 공유

흥덕고등학교(교장 노재민)는 13일 교내에서 제1회 졸업생들의 졸업 20주년을 맞아 타임캡슐 개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제1회 졸업생들이 학교에 묻어둔 타임캡슐을 20년 만에 개봉하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정수 초대 교장을 비롯한 당시 교직원과 졸업생 50여 명, 재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노재민 교장의 축사와 광정수 초대 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타임캡슐 발굴 및 개봉, 편지 낭독,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행사

가 진행됐다.

타임캡슐에는 20년 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비롯해 교복, 졸업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등 당시의 추억이 담긴 물품들이 보관돼 있었다. 참석자들은 물품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학창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오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눴다.

특히 수능 성적표가 타임캡슐에 담기게 된 사연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광정수 초대 교장은 당시 학생들에게 수능 성적보다 이후의 성장과 도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성적표를 타임캡슐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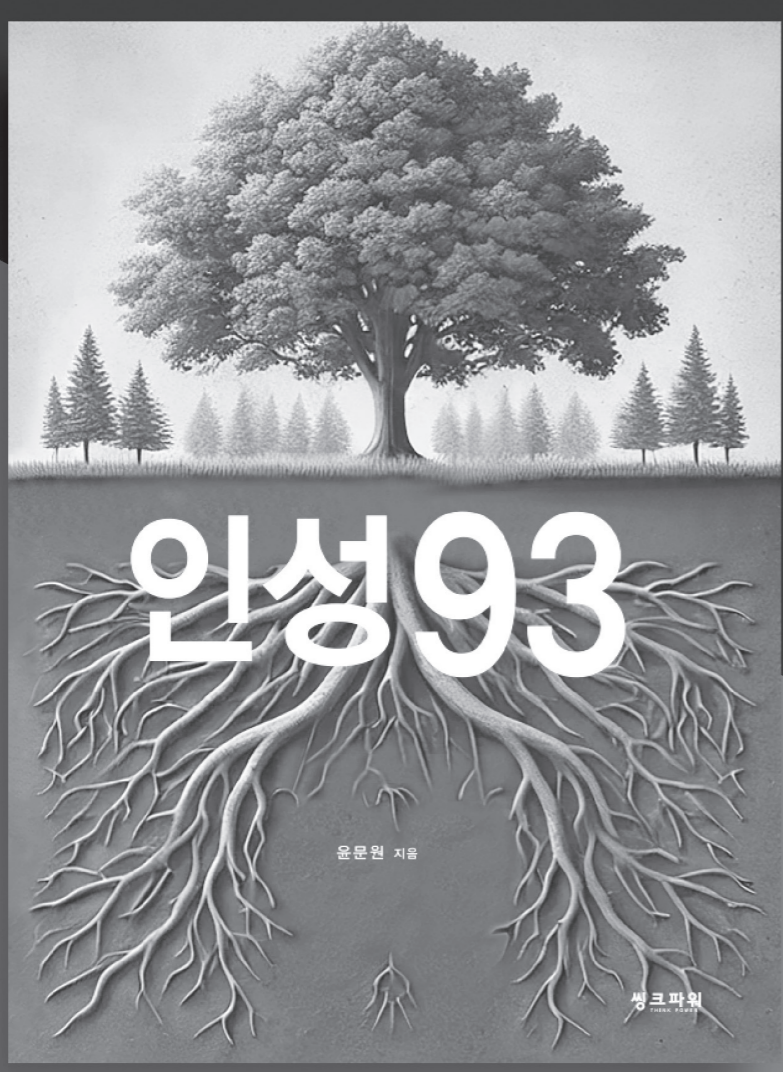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20년 전 서로에게 남긴 편지를 읽으며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오랜만에 만난 은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제 간의 정을 되새겼다. 재학생 대표들도 행사에 함께 참여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재민 흥덕고 교장은 "이번 타임캡슐 개봉 행사가 졸업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재학생들에게는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인성93**

윤문원 지음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방,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 청주하이텍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

### 행복한마을분평주공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청주하이텍고등학교(교장 심정섭)는 12일 교장실에서 행복한마을분평주공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소장 백광현)와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주하이텍고 학생들은 아파트 단지 내 환경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인

정 어르신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어린이집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시설 공사나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주차 공간을 공유하며 지역 내 주차 및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청주하이텍고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 밖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정섭 청주하이텍고 교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충북농업계고공동실습소, 도시농업 직무연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소장 류영목)는 13일부터 도내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초록집콕, 도시농업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총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도시농업과 생태교육을 접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수 과정은 ▲플라워박스 만들

기 ▲소형 농기계 운전 ▲반려식물 식재 및 관리 ▲식물공감 스마트 관수 ▲친환경 방제 실습 등 도시농업과 생태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연수는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교원들은 다양한 농업 체험을 통해 농업과 생태의 가

치를 이해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류영목 충북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생태 순환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관련 실습 중심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화순 이양초, 영어로 노래하며 자신감 키워

### 3~6학년 12명 참가 직접 준비한 '영어 동요대회' 성장과 성취의 무대 선보여

전남 화순 이양초등학교(교장 김복선)는 5월 영어미션 활동의 일환으로 '영어 동요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그동안 갖고있는 영어 실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영어 동요대회는 단순히 영어 노래를 부르는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영어를 즐겁게 배우고 스스로 도전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3월 말부터 자신이 부를 곡을 선정하고 노래를 소개하는 자료를 직접 제작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대회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2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특히 4월에 전학 온 베트남 학생 2명도 함께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곡을 소개하고 영어 노래를 부르는 경험이었지만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학생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활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어 노래를 표현했다. 무대 위에서는 긴장하거나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며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관람한 학생들과 교사들은 친구들의 용기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참가 학생들은 친구들의 무대를 관람한 뒤 상의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의 이름을 직접 적어 투표했

다. 그 결과 'Super Star Award', 'Brave Singer Award', 'Future Star Award' 등 총 12개의 서로 다른 상이 수여되었으며,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특별한 상을 받았다.

상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무대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꼈다. 대회에 참가한 4학년 학생은 "결과 발표가 정말 기다려졌어요. 무대에 설 때는 많이 긴장됐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6학년 학생은 "대회를 준

비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어요. 집에서도 계속 노래를 부르며 연습하는 제 모습이 뿌듯했어요. 영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김복선 교장은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공연, 발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영어 동요대회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양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 체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어를 통해 도전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명식 기자 2580news@daum.net



# 순천효산고, '국제요리 & 제과 경연대회' 전원 수상

### 기관장상 1팀·금상 1팀·은상 3팀·동상 3팀...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 학교로 도약

순천효산고(교장 박성영)는 지난 5월 22일 열린 '2026 대한민국 국제 요리 & 제과 경연대회'에 출전해 기관장상 1팀, 금상 1팀, 은상 3팀, 동상 3팀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순천효산고 학생들은 라이브 경연과 전시 경연 분야에 고르게 참가해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수상 내역은 ▲기관장상(한식진흥원 이사장상)-라이브/3코스(조0혁 외 4명) ▲금상-라이브/3코스(조0혁 외 4명) ▲은상-전시/마지팬케이이크(김0서 외 1명) ▲은상-라이브/3코스(김0예 외 4명) ▲동상-전시/마지팬케이이크(박0현) ▲동상-라이브/3코스(김0빈 외 4명) ▲동상-라이브/바리스타(김0원 외 2명)이다.

'대한민국 국제 요리 & 제과 경연대회'는 국내 요리·디저트·제과·제빵·식음료 분야의 실력 있는 인재들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전국 규모 경연대회로, 학생들에게는 전공 역량을 발휘하고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뜻깊은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며 요리·디저트·제과·제빵 및 식음료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순천효산고 관광조리과·관광외식서비스과·디저트카페과 전공 동아리반은 학기 초부터 전라남도교육청 및 지자체 지원으로 학생주도 맞춤형 조리·디저트교육 방과후수업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을 통한 인성교육을 통해 실력과 건전한 직업의식

을 키워나갔다.

이를 통해 갖고 있는 실력으로 참가자 전원인 값진 메달을 수상하며 요리·디저트·베이커리·식음료의 명품 특성학교의 위상과 함께 전남직업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쾌거를 올렸다.

순천효산고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 배우는 현장중심의 산학일체형 도제교육과 IT기술이 주도하는 외식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 학교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올해부터 관광외식서비스과가 디저트카페과로 학교재구조화를 이루었고, 최신식의 시설과 기자재로 실습수업 현장을 꾸려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 나주공고·목포공고,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학교' 선정

### 전국 32개교에 이름 올려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와 목포공업고등학교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학교'에 선정됐다고 5월 19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래산업 트렌드에 맞춰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증명하는 값진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0개 특성화고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나주공고와 목포공고를 비롯한 전국 32개교가 최종 우수학교로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정부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환을 지원해 중소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학교와 기업이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공고와 목포공고는 지난해 지역 내 유수의 중소기업들과 탄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산학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1팀 1기업 프로젝트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우수학교 선정과 함께 '신기술 중점지원' 부문 특화형 학교로 선정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확보된 추가 재원은 디지털 산업 분야의 맞춤형 진로 다변화

와 실무 교육 환경을 고도화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 지역 기업들과의 상생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학생들이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성과를 발판 삼아 전남형 직업제고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목포공고의 '제20차 마이스터

고' 신규 지정과 나주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위해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성석 기자 2580news@daum.net

# 교실과 마을, 학교와 학교를 잇다

### 곡성 석곡초·죽곡초·고달초, 태안사로 현장체험학습



전남 곡성 죽곡초등학교(교장 임정효)는 지난 6월 9일 고달초등학교, 석곡초등학교와 함께 곡성 태안사에서 '숨-쉽-걸 공동교육과정'의 태안사 현장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날 교실에서 배운 곡성의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험학습은 세 학교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전날(8일) 진행된 교과연계 마을교육과정 곡성 역사프로그램 이론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전날 마을 강사, 이웃 학교 친구들과 함께 국보로 승격된 적인선사탑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캘리그래피 협동 작품과 타임캡슐을 만들며 오늘 현장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운 바 있다.

조여름의 싱그러움 녹음이 짙어진 9일 오전, 태안사에 도착한 세 학교 학생들은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품은 능파각을 지나며 숲이 내어주는 온전한 '힐'을 만끽했다. 이어 선생님과의 해설사의 흥미로운 설명과 함께 경내를 탐방하며, 마침내 사진과 이야기로만 접했던 국보 적인선사탑을 마주했다.

학생들은 어제 친구들과 함께 한 글자씩 정성껏 색칠했던 "적인선사탑 너 정말 멋져"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천 년의 세월을 굳건히

버티온 웅장한 석조 예술품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날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죽곡초 3학년 학생은 "어제 교실에서 고달초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고 그랬던 적인선사탑을 진짜로 보니까 엄청 크고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국보라고 하니깐 왠지 더 자랑스러워요. 숲길도 걷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퀴즈도 풀면서 하니깐 공부가 늘어처럼 정말 재밌었어요"라며 상기된 얼굴로 소감을 전했다.

임정효 교장은 "마을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아이들에게 가장 살아있는 교과서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어제의 '힐'이 오늘의 체험으로 이어지는 이번 공동교육과정처럼, 앞으로도 작은 학교 간의 연대를 끈끈하게 다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곡성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죽곡초등학교는 이번 태안사 현장체험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나누며 생각을 모으는 후속 활동(결과)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실과 마을, 그리고 이웃 학교의 경계를 허물며 넘나드는 '숨-쉽-걸 공동교육과정'은 곡성 지역 작은 학교들의 새로운 상상 모델이자 역사 교육의 장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강재규 기자 2580news@daum.net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주식회사 한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안전관리 역량 높인다

# “생각을 넘어 변화 이끌어 전북 교육발전에 도움”

### 전북교육청, 14개 시군 업무담당 법정 의무교육 통해 행사 안전 운영 도모

### 제4기 전북학생의회, 상반기 정기회서 학생자치 연합회 활성화 등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개최 예정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대회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쓴다.

전북교육청은 1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14개 시군 업무담당 장학사, 주무관, 학교스포츠클럽 현장지원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 및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방법 △참석자 안

전대책 수립 및 대피경로 확보 △체육 행사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체육 행사 안전점검 방법 및 시기 △안전 조직 구성 및 인력 선발·교육·배치 △체육 행사 장소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회 특성과 규모, 여건을 고려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영근 문예체육건강과장은 “법정 의무 교육을 통해 대회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규모와 여건에 맞는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6 전북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학생의원 자유발언 3건, 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정책 제안 4건을 심의했다.

3분 자유발언에서는 △문해번 학생의원이 '학생자치 연합회 활성화' △최윤식 학생의원이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 양건후 학생의원이 교실붕괴를 막기 위한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분과위원회가 상정 안건으로는 △전북 국제교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딤돌 캠프'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늘푸우리' 개선 △학교 내 상담망 강화 △학생 참여 기반 학생생활규정 개선 등이 있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4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직접 출



석해 현황과 검토 의견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학생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지난 2023년 출범해 올해 4기를 맞이한 전북학생의회는 그동안 상정된 정책 제안, 진로박람회 확대, 인권 존중 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여가반 학생생활규정 개선 등이 있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4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직접 출

가 전북 학생들과 전북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의원들의 용기있는 참여와 멋진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학부모 소통·성장 공간 무료로 이용하세요”

###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대관 서비스 상시 운영... 화~금요일 최대 3시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가 도내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센터 내 모임 및 교육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대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이번 공간 개방은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와 소규모 모임, 교육 및 상담 활동 등 다채로운 학부모 자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관 가능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부모 및 학부모 동아리이며, 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도 사전 협의의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목적이나 영리목적의 이용은 제한된다.



개방 공간은 이용 목적과 인원수에 맞춰 △배움ON: 강의, 교육, 설명회 등 대규모 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최대 20명) △생각ON: 동아리 활동, 회의, 스터디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최대 12명) △

공감ON: 자물 도입, 문화 활동, 상담 등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공간(최대 8명)으로 크게 구성됐다.

공간 이용 시간은 화~금요일(월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일

최대 3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공간 대관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단체는 먼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유선 연락(063-223-1396)을 통해 일정을 확인한 후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jbpsc@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센터 측의 신청서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간 안내 및 대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www.jbps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길 전북학부모지원센터장은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라며 “도내 많은 학부모와 동아리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함께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전북에듀페이크드 부정사용 안돼”

### 전북교육청, 8월까지 정기 현장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전북에듀페이크드 사용처(가맹점) 정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북에듀페이크드 교육비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현장의 실제 이용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맹점을 방문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허용 품

목 및 서비스 제한 준수 여부 △가맹점 운영 지침 이행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시군 교육지원청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정기 및 수시 점검, 안내서 제작 배부,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북에듀페이크드 교육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가맹점 관리를 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전북에듀페이크드=교육비'라는 인식이 정착됐고, 주요 사용처도 서점, 문구점, 스터디 카페 등으로 분석돼 본연의 목적

에 충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구매 물품을 따뜻한 나눔으로 기부하며 교육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스터리 쇼퍼 점검 과정에서 구입한 2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탁해 보호 아동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전북에듀페이크드 도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정착 기반을 바탕으로 바른 사용 문화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지역산업 발전 이끌 인재 키우는 장

### 전북교육청, 제23회 전북상업경진대회 330명 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제23회 전북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도내 9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 250여 명과 지도교사, 집행위원 등 총 330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회계실무, 창업실무, 비즈니스 영어, ERP,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등 10개의 경진종목과 경제골든벨, 창업동아리엑스포 등 2개 경연종목으로 운영됐다.

이번 대회 각 종목별 입상자들은 오는 8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전북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상업계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운영이 내실화 되고,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직업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나누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상업경진대회가 전북 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 키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상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발휘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경계선지능 유아 맞춤형 지원 나서

### 전북교육청, 공·사립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사립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느린 배움을 품는 따뜻한 교실,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운영된 이 연수는 경계선지능 유아의 특성과 사회정서 발달을 이해하고, 교사의 상호작용 방법과 학급 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유선미 명지대 아동학 교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스경

계선지능 유아 이해와 발달 특성 △사회정서 지원 전략 △부모상담 시 중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경계선지능 유아에 대한 이해는 유아의 배움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출발점”이라며 “교원들이 유아의 발달 특성과 정서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역량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교실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곡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殷·東夷·韓民族 이야기

臺, ‘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이 흐르는 길’이다

전쟁터의 요충지인 돈대(墩臺)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舞臺). 용도는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두 공간은 대(臺)라는 글자를 공유한다. 흔히 이 글자를 ‘높이 쌓아 올린 흙무더기’나 ‘고정된 건축물’로만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갑골문이 전하는 진짜 이야기는 정반대다. ‘대’의 본질은 멈춰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그 위를 분주히 오가는 ‘발걸음’에 있다.

■ 갑골문에 새겨진 비밀: ‘멈춤’이 아닌 ‘나아감’  
한자 대(臺)의 갑골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형상이 나타난다. 하단에는 집

을 뜻하는 건축물의 형태가 있고, 그 위에는 발바닥 모양과 가로선(一)이 결합해 있다. 후대에 이 모양은 ‘그칠 지(止)’와 혼용되기도 했으나, 본래는 지면(一)을 딛고 힘차게 나아가는 갈 지(之)의 원형이다.

즉, 고대인들이 정의한 ‘대’는 단순히 높게 지은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 그 위를 자유롭게 오가며 활동하고, 이동하며, 소통하는 역동적인 ‘이동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 돈대와 무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선  
이 조자 원리를 이해하면 돈대와 무대의 연결고리가 선명해진다.



돈대(墩臺)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군사들이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무대(舞臺) 역시 배우나 무용수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동선을 그리며 움직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공간

이다. 결국 두 장소의 공통점은 ‘높음’이라는 외형적 높이가 아니라, 그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역동적인 활동’에 있다. ■ 복잡한 뒤편에 가려진 명료한 본질

안타깝게도 한자의 고전이라 불리는 『설문해자』가 편찬될 당시에는 이러한 갑골문의 원형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쓰는 臺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획을 갖게 되었다. 만약 본래의 뜻을 따랐다면, 경계(阌)를 나타내는 글자 위에 발걸음(之)을 더한 훨씬 명료한 형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 공간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한자의 원형을 꿰뚫는 일은 복잡한 글자를 외우는 지름길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대(臺)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쌓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사람의 발걸음이

기고 활동이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로서의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수많은 ‘대’ 위에는 어떤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가. 글자의 원형을 통해, 공간의 진정한 주인은 벽돌이 아니라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럼

‘틴 테이크오버’ 시대, 부모 책임법을 숙고(熟考)하며...

“우리는 과연 부모의 책임을 교육하고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는 촉박 소년(만 14세)의 나이를 하향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십 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해진 범죄 수법과 빈번한 횡수에 그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십대 청소년에 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바람직한 성장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숙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요즘 바다 건너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틴 테이크 오버(Teen Takeover)’다. 이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모여 도심을 점거하고, 난폭운전과 폭력, 기물 파손을 벌인 뒤 흩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여러 도시에서는

공공질서 훼손과 시민 불안을 이유로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논의의 화살이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반복적 비행에 대해 부모에게 벌금이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러 주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모에게 일부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아이가 잘못했는데 왜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가?” 역으로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 “부모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학교폭력, 집단 폭행, 무면

허 운전, 온라인 범죄, 마약 범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점점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수법은 성인 범죄를 닮아간다. 그런데 이상한 면이 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를 탓한다. 학교는 가정을 탓한다. 가정은 사회를 탓한다. 사회는 제도를 탓한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그 사이 정작 책임은 사라진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공만 있고 선수는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유엔 산하 아동권리 관련 보고서들은 청소년 문제를 단순히 부모 개인의 실패로 환원하는 접근을 경계하고 있다. 아동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양육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모의 역할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

다.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학교는 가정이지 않은가? 첫 번째 교사는 부모다. 첫 번째 생활 규칙도 부모에게 배운다. “하지 마라”보다 강력한 교육은 부모의 삶 그 자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따라 한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는가? 실제 아버지가 독서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교육이 아니라 연설이 된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게임을 즐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쩌면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자녀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인지도 모른다. 독일의 한 교육학자는 “아이 문제의 절반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라고 말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십 시간 교육을 받는다. 심지어 반려견을 입양할 때도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역할은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부모는 세상에 유일하게 채용 공고도 없이 시작하는 직업이다.” 웃음이 나지만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부모 책임 조항을 법으로 강화해야 할까? 필자는 일정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처벌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벌금 부과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 의무화다.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 참여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 책임 회복이다. 이제 우리에게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더 많은 CCTV가 아니다. 더 많은 경찰도 아니다. 저녁 식탁에서 자녀와 눈을 맞추는 부모, 하루 10분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하는 부모, 잘못했을 때 책임을 가르치는 부모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범죄의 책임을 법으로 부모에게 물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부모의 책임을 교육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부모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실행하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법적 제도가 필요한 때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 윤 용 의 100세 칼 럼

번아웃 뒤에 숨은 세포의 비명, 만성피로증후군과 ‘뇌-장 축’에서 찾는 해결의 실마리

1. 에너지 방전의 신호, 만성피로증후군의 과학적 실체 - “조금 쉬면 괜찮아 지겠지”라고 넘겼던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태인 근육통성 뇌척수염/만성피로증후군(ME/CFS)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ME/CFS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주관적 증상이 아니라, 면역계 조절 이상,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중추신경계의 신경염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신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ME/CFS 환자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ATP)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뇌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회로가 지속적인 염증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되고,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량을 줄이는 ‘질병 행동(sickness behavior)’ 상태에 들어갑니다. ME/CFS의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작업후 권태감(Post-exertional malaise)입니다. 이는 가벼운 신체 활동이나 정신적 활동 후에도 며칠 동안 극심한 피로와 기능 저하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 완치제가 없는 만성 피로, ‘운동이 득이 되는’ 역설 - 안타깝게도 ME/CFS

를 완전히 치료하는 표준 약품이나 치료법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는 주로 피로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피로 관리법이 일부 환자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만성 피로 환자들에게 널리 권장했던 ‘점진적 운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는 최근 연구에서 효과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E/CFS 환자는 일반적인 운동 부족과 달리 세포 에너지 대사와 면역 조절 체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작업후 권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치료보다는, 개인의 상태와 생체 반응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코로나19 장기 후유증(Long COVID)과 ‘뇌-장 축(Brain-Gut Axis)’의 교란 - 최근 만성 피로 연구가 크게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Long COVID)이 있습니다. 많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는 ME/CFS와 유사하게 지속적인 피로, 운동 후 악화, 집중력 저하(Brain fog)를 경험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질환 사이의 공통된 생물학적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로 뇌-장 축(brain-gut axis)의 이상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면역과 신경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염이나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벽 기능이 약화되면 장내 미생물 유래 물질이 혈액으로 이동하는 ‘미생물 전위(microbial translocation)’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가 면역계 이상 및 신경계 염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의 변화가 뇌 기능과 자율신경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뇌-장 축’의 악순환이 만성 피로 증상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의 관심사입니다. 4. 만성 피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침·뜸·추나·한약 연구의 가능성 - 최근에는 뇌-장 축과 신경-면역 조절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치료 접근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적 치료법들이 이러한 생체 조절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중입니다. 첫째,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기력 저하와 허약 상태의 개선에 사용되어온 대표적 처방인 ‘사군자탕(四君子湯)’의 효능이 다기관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군자탕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직접적으로 재조정하여 유익균의 점유율을 높이고

피로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약재 황기에서 추출한 ‘황기 다당류(Astragalus polysaccharide)’ 역시 복합 인자로 유발된 만성 피로 동물 모델에서 단쇄지방산(SCFA) 대사산물을 촉진하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뇌-장 축의 병리 상태를 개선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정밀 의학 기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만성 피로 한약 치료는 한의학 특유의 맞춤형 세분화 진단 유형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진 후, 말초혈액 단백질의 히스톤 인산화(Histone phosphorylation)와 같은 후생유전학적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침 및 전침 치료’는 자율신경계 조절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RCT 연구에 따르면, 침과 뜸 치료는 심박수 변동성(HRV)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여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신경-면역계의 항상성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뇌-장 축 치료 기전 연구에서는 깊은 비골신경(deep peroneal nerve) 부위의 전침 자극이 미주신경 반사를 강력하게 유발하여, 중추신경계의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장벽의 투과성을 회복시키는 뇌-장 축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수기 요법의 ‘추나 치료’ 역시

의미있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임상시험 연구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게 4주간 주 3회(총 12회)의 추나 치료를 일관 관리와 병행한 결과, 단순 일반 관리군에 비해 환자가 느끼는 다차원적 피로 점수와 신체 기능 장애가 비약적으로 감소하고 치료의 안전성 또한 매우 우수함이 밝혀졌습니다. 5. 세포 에너지를 지키는 일상 속 만성 피로 자가 관리법 -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병행되는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뇌-장 축과 미토콘드리아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활 페이스 조절을 통한 에너지 보존: ME/CFS 관리를 위한 무리한 활동으로 작업 후 권태감을 유발하지 않는 생활 페이스 조절(pacing)입니다. 일상생활 중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파악하고, 신체 활동과 정신적 집중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 피로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장 축 보호를 위한 식이 및 장 건강 관리: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 장벽 투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제당과 가공식품, 글루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미생물이 장내에서 유익한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것을 돕고 면역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이완을 위한 부드러운 심신 요법: 격렬한 운동보다는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과 같은 저강도 심신 이완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긴장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수면과 회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참으면 지나가는 피곤함’이 아니며, 우리 몸의 면역계와 신경계, 그리고 장내 환경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앞으로의 만성 피로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세포 에너지 대사와 뇌-장 축, 면역 조절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성 피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반한 과학적 한의 치료와 관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최윤용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옴생약 대표이사

<https://worldfurni.com>



부산·경남 가구 조달 판매 1위

# WORLD FURNITURE

상담전화  
**1588-3886**

 **월드퍼니처**  
www.worldfurni.com

**학교 교육용 가구 전문 생산업체 월드퍼니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품질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 연계고용담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시담  
하여 계약을 체결

BENEFIT 03

###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 가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